

住宅에서 內裝材로 쓰이는 纖維의 絕緣效果와 消費者意識에 關한 研究*

—커튼을 中心으로—

The Effect in Heat Controlling and Consumer Perceptions
Towards Home Furnishing Fabrics
—Focus on Curtains and Draperies—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教 授 尹 福 子
衣生活學科 副 教 授 都 在 恩
住生活學科 研究助教 金恩德·柳英熙·洪英基
衣生活學科 研究助教 朴 文 惠·李 熙 南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 **Bok Cha Yoon (Lee)**

Associate Prof.; **Jai Un To**

Research Assistant.; **E.D. Kim, Y.H. Ryuh, Y.K. Hong**

M.H. Park, H.N. Lee

<목 차>

I. 서 론

II. 연구 방법

III. 조사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intent of this study was to focus atten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rtain fabrics and consumer perceptions towards curtains and draperies. This study consisted of the laboratory test for thermal transmittance of selected fabrics and the exploratory survey for consumer perceptions towards curtains and draperies.

The objectives of the laboratory test were to measure fabric's thermal transmittance, thickness, and count which affect to the effect in heat controlling. Selected 23 fabrics were tested at Korean Yarn and Fabrics Testing Inspection Institute.

The objectives of the exploratory survey were to determine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the economic status, and homemaker's level of education, and physical factors; the type of houses, the direction of windows, and the type of windows, which affect

*재단법인 경방육영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consumer perceptions towards curtains and draperie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89 homemakers selected by a stratified proportional sampling plan, in Seoul in October, 1981. Data from responses were analyzed by F-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Partial Correl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results of the laboratory test

1) The fabrics used for draperies had higher effect in heat controlling than the fabrics used for glass curtains.

2) It did not show much differences among the fibers in heat controlling. The thicker fibers, however, had the higher effect in heat controlling among same fibers.

3) The fabrics which had high level of effect in heat controlling were corduroy, flax, rayon, nylon, acetate, thick polyester, and thick polyacrylic. The fabrics which had midium level of affect in heat controlling were velveteen, velvet, and thin polyester. The fabrics which had low level of effect in heat controlling were cotton, silk, and thin polyacrylic

4) The draperies with lining showed 2~5 times more effective in heat controlling than the draperies without lining.

2.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survey

Consumer perceptions towards curtains and draperies consisted of functional, financial, and aesthetic perception.

1) Factor affecting functional perception towards curtains and draperies was the stage of family life cycle. Families in the contracting stage considered function of curtains and draperies significantly better than thoes in others stages.

2) Factors affecting financial perception towards curtains and draperies were the economic status, homemaker's level of education, the direction of windows, and the type of windows.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nd financial perception was too low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endency.

3) There was not any factors affecting aesthetic perception towards curtains and draperies.

I. 서 론

인간은 지형과 기후와 같은 자연변화와 다른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난처(shelter)로서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왔다.³⁾ 벽, 바닥, 천정으로 구성된 주거공간은 물리적 구조체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주거구성요소인 벽은 내부와 외부공간의 한계를 명확히 지어 주면서 이 벽의 일부에 창을 만들므로써 또한 개방성을 지닌다. 창기능은 외부로부터 빛, 공기, 소리를 내부에 들어

오게하며 시각적으로는 외부의 시야를 넓혀 심리적인 만족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창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내환경 구성요소의 하나로 커튼과 같은 창문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튼이 구한말 서양건축이 도입되면서부터 궁궐건축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⁴⁾ 오늘날에는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튼을 실내장식과 방한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커튼이 여름의 뜨거운 열을 차단하며 외부의 소음을 막아 주는 물리적 기능면은 잘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내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커튼의 절연효과를 조사하고, 커

튼의 제반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정도를 알아 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내장재 섬유중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커튼지를 조사하여 물리적 실험으로 섬유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절연효과와 소비자의 커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그리하여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과 함께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생산자들에게는 소비자의 욕구를 알려줌으로써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튼지를 조사하여, 섬유의 종류별 두께와 밀도에 따른 보온성 실험을 통하여 절연효과를 조사한다.

2) 커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커튼 인식요인(기능성, 경제성, 심미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인구학적 변인(가정생활주기, 생활수준, 주부의 교육수준)과 물리적 변인(주거형태, 창의 향, 창의 구조)의 독립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2.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커튼에 대한 용어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커튼의 종류는 용도, 형태, 길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용도별 커튼의 종류는 글래스커튼(glass curtain), 드로우커튼(draw curtain), 드레퍼리(draperies)로 구분된다.

글래스커튼은 창에 가장 가까이 설치하는 커튼으로 대개 얇은 직물을 사용하여 흔히 레이스 커튼(lace curtain)이라고도 한다.

드로우커튼은 커튼레일에 걸어 끌어 당겨 열거나 닫을 수 있는 형태로 과거에는 글래스커튼과 드레퍼리 사이에 설치하였으나 요즘은 드로우커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드레퍼리는 얇은 직물의 글래스커튼 위에 설치하는 두꺼운 직물로된 커튼으로 광의로는 모든 커튼을 의미한다.

형태별 커튼의 종류는 새쉬커튼(sash curtain), 카페커튼(café curtain), 카티이지커튼(cottage curtain), 티어커튼(tier curtain), 타이백커튼(tie-back curtain), 프리실라커튼(priscilla curtain) 등이 있다. (<그림 2> 참조)

커튼 주름의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는 프렌치주름(french pleat), 상자형주름(box pleat), 둥근고리(open ring), 막주름(plain shirring) 등이 있다. (<그림 1> 참조)

커튼의 길이는 창의 구조나 커튼을 설치하는 방의 용도에 따라 달리하며 창문턱(sill length)이나 창문받이(apron length), 혹은 바닥(floor length)까지 내려온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²³⁾에서 실험방법과 소비자실태조사방법을 겸한 연구를 강조한 바와 같이 실내 내장재 중 커튼지의 절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물리적 실험조사와 커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방법을 택하였다.

1. 물리적 실험조사

커튼지의 절연성에 대한 물리적 실험조사를 위하여 시험포(sample)의 선정은 소매시장, 커튼지 전문 판매점, 커튼지 생산회사등의 시장조사를 하여 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커튼지를 중심으로 섬유별, 용도별로 분류하고 두께와 밀도를 고려하여 23종류를 택하였다. 23종류의 커튼지는 안감용으로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1종류, 글래스커튼용으로 나일론 2종류와 폴리에스테르 2종류, 드레퍼리용으로 폴렌, 우단을 포함한 면 4종류, 아세테이트 2종류, 폴리에스테르 5종류, 폴리아크릴 2종류, 견, 벨벳, 나일론, 마, 레이온 각각 1종류이었다.

커튼지의 절연성은 수집된 시험포를 한국원사 직물시험검사소에 의뢰하여 항온법에 의한 보온성(ASTM D 1518-77)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섬유의 두께와 밀도도 측정되었다.

2. 소비자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실내를 장식하거나 커어튼을 선택할 때 주부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보아 조사대상을 주부로 하였다. 서울시내 17개 구 가운데 강남, 강북으로 구분하여 아파트 주택가와 단독 주택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되는 6개 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강남에서 4개교, 강북에서 6개교 모두 10개교의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1981년 10월에 700부를 배부하여 654부(93%)를 회수하였으나 불완전한 것과 성의없는 것을 제외하고 489부(75%)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 도구의 작성

커어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도구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고 연구팀이 관계문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 후 전문가에 의한 내용검증과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 측정($r=0.78$)을 한 후 예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사항, 커어튼의 설치현황, 커어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포함하여 총 5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인구학적 변인과 물리적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학적 변인으로 주부의 나이, 첫자녀의 나이, 생활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물리적 변인으로 주거형태, 거실의 유무, 거실창의 향, 거실창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커어튼의 설치현황은 커어튼 설치 유무와 커어튼 사이의 간격, 커어튼지의 종류, 안감의 유무, 윗부분 장식형태, 주름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커어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는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의 세 요인에 대하여 각각 13, 7, 8개의 문항으로 전체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을 무작위 순으로 배치하여 5단계의 척도를 갖고 있는 리케르트척도(Likert scale)로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해당난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작성법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백분률, 평균값(mean),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F-test)으로 통계처리하였다.

Ⅲ. 조사결과 및 논의

1. 물리적 실험조사

시험포의 보온성, 두께 및 밀도의 실험결과는 <표 1>과 같다. 이 결과를 커어튼지의 용도별, 섬유별 및 안감 사용시의 보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커어튼지의 용도별 보온성

드레퍼리용이 글래스 커어튼용보다 보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글래스 커어튼은 망사나 레이스등으로 공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짜여져 보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드레퍼리용은 직물내에 공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짜여지고 두께 또한 두꺼워서 보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안감용으로 사용된 폴리에스테르 65%와 면 35% 혼방직물은 비교적 낮은 보온성을 보였다.

2) 커어튼지의 섬유별 보온성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온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에 의하면 면종류에서는 면 A(골덴) > 면 B(우단) > 면 C > 면 D의 순으로 보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섬유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차이로 기모직이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명직인 경우는 두께와 밀도에 따라 보온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의 경우는 보온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적으며 경·위사의 굵기가 굵고 몇 가닥의 실이 꼬여서 이루어 졌으므로 직물내 함기량이 많아져 보온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견은 보온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두께가 가장 얇았고 조직이 치밀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벨벳과 우단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같은 기모직인 때문으로 보인다. 레이온, 아세테이트 및 나일론은 대체로 보온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에

<표 1>

섬유별 보온성

	용도	섬유	열전달계수* (w.sec/m ² .°C)	두께 (mm)	밀도 (울수/5cm)
1	글래스커어튼	폴리에스테르 a	210,984.5	0.30	58×41
2		폴리에스테르 b	158,509.1	0.27	368×186
3		나일론 a	147,624.9	0.38	26×24
4		나일론 b	100,846.8	1.15	66×66
5	드레퍼리	면 A (골멘)	88,660.5	1.16	102×97
6		면 B (우단)	102,348.8	1.26	127×114
7		면 C	134,658.0	0.18	210×177
8		면 D	155,682.7	0.22	182×140
9		마	60,009.4	1.20	65×41
10		견	202,018.6	0.12	239×166
11		벨벳	106,577.9	0.70	169×128
12		레이온	72,547.4	0.37	250×250
13		아세테이트 A	53,983.9	0.59	165×275
14		아세테이트 B	80,143.1	0.45	90×385
15		나일론	73,022.8	0.92	113×162
16		폴리에스테르 A	57,108.2	0.90	235×65
17		폴리에스테르 B	61,937.9	0.41	280×185
18		폴리에스테르 C	82,948.3	0.73	325×250
19		폴리에스테르 D	113,682.4	0.44	275×85
21		폴리에스테르 E	115,988.4	0.34	257×115
21		폴리아크릴 A	84,083.4	0.61	275×140
22		폴리아크릴 B	157,306.8	0.34	387×87
23	안감	폴리에스테르65%면35%	151,128.7	0.22	230×138

* 수가 적을수록 보온성이 큼

의하면 폴리에스테르종류에서는 폴리에스테르A > 폴리에스테르B > 폴리에스테르C > 폴리에스테르D > 폴리에스테르E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온성이 높았으며 경·위사의 울수와 각각에 사용된 실의 꼬임과 굵기, 그리고 직조상의 무늬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아크릴은 두께가 두꺼운 폴리아크릴 A가 폴리아크릴 B보다 보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섬유별 보온성은 전체적으로 3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참조) 보온성이 낮게 나타난 직물은 열전달계수가 150,000w.sec/m².°C 이상으로 글래스 커어튼용 폴리에스테르 2종류,

안감용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얇은 면 D, 견, 폴리아크릴 B이었다. 보온성이 중간 정도로 나타난 직물은 열전달계수가 90,000w.sec/m².°C 이상 150,000w.sec/m².°C 이하로 글래스 커어튼용 나일론 2종류, 면 B(우단), 면 C, 벨벳, 얇은 폴리에스테르 D와 E이었다. 그리고 보온성이 높게 나타난 직물은 열전달계수가 50,000w.sec/m².°C 이상 90,000w.sec/m².°C 이하로 면 A(골멘), 마, 레이온, 아세테이트 2종류, 두께가 두꺼운 폴리에스테르 A,B,C 3종류, 폴리아크릴 A이었다.

직물이 두꺼울수록 보온성이 높은 결과는 오해 경의 연구(1975)⁷⁾에서 단열율이 직물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어느 정도 직물의 두께에 정비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3) 커어튼지의 안감 사용시 보온성

혼방(P/C; 폴리에스테르와 면)의 안감을 드레퍼리용 직물 6종류 각각에 포개어 보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한점으로 실험하였을 때 보다 모든 직물에 있어서 보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골면, 우단, 벨벳, 폴리에스테르의 경우는 보온성이 약 2배 정도, 견은 거의 4, 5배 정도, 얇은 폴리아크릴은 약 3배 정도로 보온성이 높아졌다.

<표 2> 안감 사용시 보온성

직물	열전달 계수(a) (w.sec/m ² .°C)	열전달 계수(b) (w.sec/m ² .°C)
면 (골면)	88,660.5	44,987.6
면 (우단)	102,348.5	58,450.0
견	202,018.6	45,166.8
벨벳	106,577.9	68,019.0
폴리에스테르	82,948.3	55,168.0
폴리 아크릴	157,306.8	51,623.0

a: 한 점으로 측정된 결과

b: 혼방(p/c) 안감을 포개어 두점으로 측정된 결과

이상과 같이 안감을 사용할 경우는 두 직물 사이에 정지된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성이 크게 증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점이었을 경우는 보온성에서 차이가 심했으나 안감을 사용한 후에는 거의 일정한 보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Stepat-de Van²⁴⁾이 "드레퍼리는 실제로 절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한 직물로 안감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방한 공기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 점과 일치하였다.

2. 소비자 실태조사

소비자의 커어튼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 사항, 커어튼의 설치현황, 커어튼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서 인구학적 배경과 주거상태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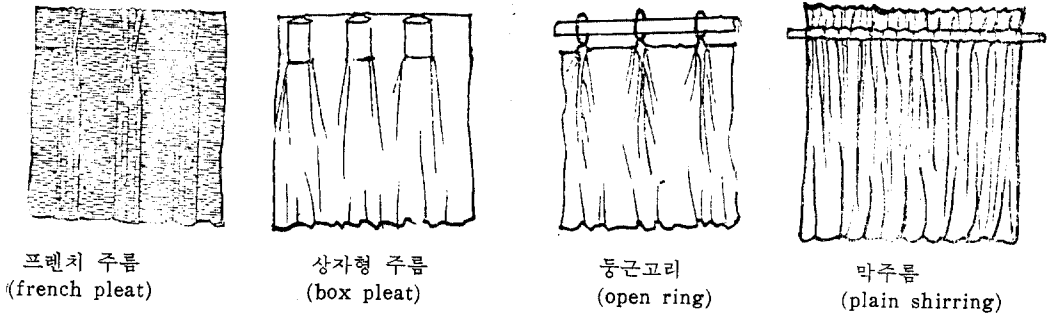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배경은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조사하였다. 표집된 489가구의 가정생활주기는 팽창기(자녀가 국민학생에서 대학생까지)가정이 81.6%로 가장 많았고, 축소기(팽창기 이후)가정이 11.0%, 형성기(결혼후 자녀가 취학할 때 까지)가정은 7.4%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총 응답자 가운데 54.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6.4%로 평균연령은 36세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자가 41.3%, 고등학교 졸업자가 37.4%로 학력이 높은편이다. 생활수준은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사용하여 9단계로 나눈 것을 빈도 수를 고려하여 上·中·下로 재조정된 결과 上이 41.8%, 中이 45.4%, 下가 13.0%로 나타났다.

주거상태는 주거형태, 거실의 유무, 창의 향 및 구조를 조사하였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약 60%, 집합주택이 40%로 표집되었고 단독주택중 양옥이 42.9%, 한옥이 17.0%였다. 거실은 85.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거실이 없는 경우는 안방이 거실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의 향과 구조를 조사하였다. 창의 향은 남향이 가장 많아 67.4%이었고 창의 구조는 이중창이 77.5%이고 단창이 22.5%였다.

2) 커어튼의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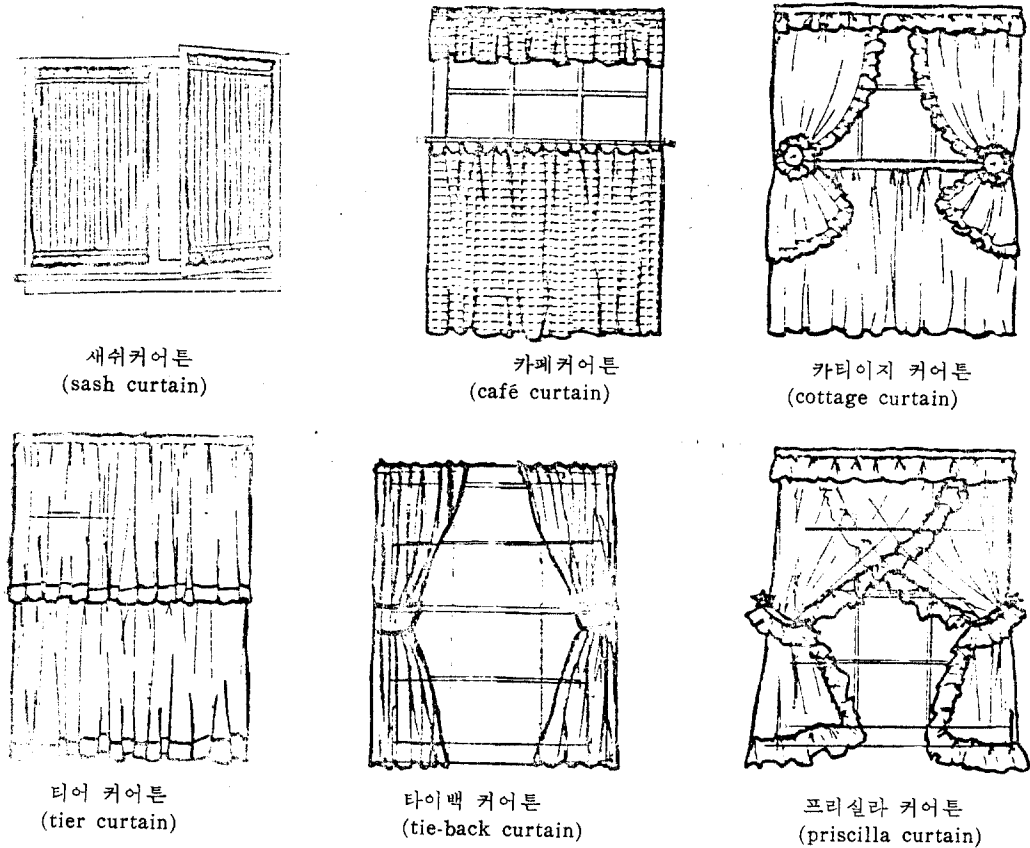
현재 소비자들이 커어튼을 설치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커어튼 종류, 이중커어튼, 안감과 커어튼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커어튼 종류는 커어튼의 주름, 길이, 형태와 장식을 조사하였다. 커어튼의 주름은 <표 3>과 같이 프렌치주름이 85.7%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1> 참조) 커어튼의 길이는 천정에서 창문턱과 바닥사이까지가 47.4%이고, 천정에서 창문턱까지는 31.7%이었다. 커어튼의 형태는 타이백커어튼, 카티이지커어튼, 새쉬커어튼, 카페 커어튼 등 여러형태가 있으나(<그림 2>참조) 본조사에서는 91.2%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타이백 커어튼 사용으로 나타났고 그의 형태의 커어튼은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커어튼의 장식은 커어튼의 윗부분 장식으로서 커어튼박스가 25.4%정



[그림 1] 커튼 주름형태

<출처> Whiton, S., *Interior Design and Decoration*, J.B. Lippincott Company, 4th ed., 1974, p.579.



[그림 2] 커튼의 형태

<출처> Stepat-de Van, *Introduction to Home Furnishings*, The MacMillan Company, 1964, p.151.

<표 3> 사용되고 있는 커어튼 종류의 분포 N=489

내용 구분 분포	주 립					길 이				형 태					장 식				
	프 렌 치 주 림	상 자 형 주 림	등 근 고 리	막 주 림	합 계	천 장 ~ 창 분 턱	천 장 ~ 바 닥	천 장 ~ 바 닥 사 이	합 계	타 이 백 커 어 튼	카 티 이 지 커 어 튼	새 쉬 커 어 튼	카 페 커 어 튼	합 계	발 란 스	코 니 스	커 어 튼 박 스	무 장 식	합 계
f	419	24	1	45	489	140	97	232	489	446	22	4	17	489	27	98	124	240	489
%	85.7	4.9	0.2	9.2	100.0	31.8	19.8	47.4	100.0	91.2	4.5	0.8	3.5	100.0	5.5	20.0	25.4	49.1	100.0

<표 4> 이중커어튼 및 안감의 설치현황 N=489

내용 구분 분포	이중커어튼의 유무			이중커어튼의 간격					안감의 유무		
	유	무	합 계	3cm 미만	3cm 이상 ~ 6cm 미만	6cm 이상 ~ 9cm 미만	9cm 이상	합 계	유	무	합 계
f	249	240	489	86	126	27	8	249	44	445	489
%	50.9	49.1	100.0	35.0	50.8	11.0	3.2	100.0	9.0	91.0	100.0

<표 5> 사용되고 있는 커어튼지 현황 N=489

내용 구분 분포	글래스 커어튼				드레퍼리 커어튼				
	나 일 론	아 세 테 이트	기 타	합 계	합 성 섬 유	면	마	기 타	합 계
f	108	127	14	249	338	56	89	6	489
%	43.5	51.6	4.9	100.0	69.1	11.5	18.2	1.2	100.0

도 있었고 코니스(cornice)와 발란스(valance)로 장식한 가정도 있었으나 49.1%가 아무장식도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중 이중커어튼을 설치한 가정은 <표 4>와 같이 50.9%로 반이상이었다. 이중커어튼의 간격은 3cm 이상~6cm 미만이 50.8%로 가장 많았

다. 조사대상자중 안감을 커어튼에 맨 가정은 9%로 거의 안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어튼지는 커어튼의 용도별로 나누어 글래스커어튼지와 드레퍼리커어튼지를 각각 조사하였다. <표 5> 글래스커어튼에 사용된 직물류는 아세테이트가 51.6%, 나일론이

<표 6> 커어튼 인식요인의 점수분포

N = 489

중속 변인 점수 범위	기 능 성		경 제 성		심 미 성	
	f	%	f	%	f	%
31~40	1	0.2	1	0.2	0	0
41~50	10	2.0	34	7.0	0	0
51~60	93	19.1	141	28.8	42	8.6
61~70	237	48.4	248	50.7	182	37.2
71~80	135	27.6	54	11.1	210	43.0
81~90	13	2.7	10	2.0	54	11.0
91~100	0	0	1	0.2	1	0.2
합계	489	100.0	489	100.0	489	100.0
Mean	66.1		64.3		71.9	
S.D.*	7.4		8.1		7.3	

*S.D. = Standard Deviation

<표 7> 커어튼 인식요인과 독립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관계

커어튼 인식 독립변인	기 능 성	경 제 성	심 미 성
가정생활주기	0.0954*	0.0444	-0.0606
생활수준	-0.0546	0.0269	-0.0157
교육수준	0.0906*	-0.0561	0.0840*
주거형태	0.0423	-0.0255	-0.0037
창의향	-0.0116	0.0689	0.0148
창의구조	-0.0759*	-0.0393	-0.0741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43.5%였다. 드레퍼리에 사용된 직물류는 합성섬유가 69.1%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3) 커어튼에 대한 소비자인식요인과 가설분석

커어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커어튼의 기능성, 경제성과 심미성의 3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커어튼에 대한 소비자인식요인의 점수분포현황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커어튼인식요인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기능성이 65점, 경제성이 35점, 심미성이 40점으로 각 요인간의 비교를 위하여 모두 100점 단점으로 환산해 볼 때 평균

점수는 기능성이 66점, 경제성이 64점, 심미성이 72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심미성이 기능성이나 경제성보다 높게 나타나서 커어튼을 장식적요소로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학적변인과 물리적변인이 소비자의 커어튼 인식요인(기능성, 경제성,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6개의 가설을 세우고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단계는 각 독립변인과 커어튼 인식요인 각각에 대한 차이검증을 위하여 F-test로 분석하였으며, 2단계는 각 독립변인과 커어튼인식요인간의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위하여 다른 변인의 복합적영향을 통제한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로 분석하고, 그 상관계수의 유의 수준(significance level)을 조사하였다.

인구학적변인인, 가정생활주기, 생활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커어튼인식요인 각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가설 1>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자의 커어튼 인식요인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1단계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의 커어튼 인식을 차이검증한 결과 기능성은 .01수준에서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나 긍정되었으나 경제성과 심미성은 부정되었다. 기능성이 축소기에서 다른 주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축소기의 주부가 커어튼의 기능을 가장 잘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단계로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에 가정생활주기와 커어튼인식요인 중 기능성과의 상관관계는 .05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7) F-test 결과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가설 2> 생활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커어튼 인식요인 각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단계로 생활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커어튼 인식을 차이검증한 결과 경제성은 .05수준에서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나 긍정되었으나 기능성과 심미성은 부정되었다. 경제성에서 하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수준이 낮은 주부들이 경제적인 면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단계로 다른 변인들을 통제시킨 후에 생활수준과 커어튼인식요인 모두와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7) 따라서 F-test 결과 가설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표 8>

인구학적변인과 커어른인식요인간의 변량분석

N=489

커어른인식요인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	
		M.	S.D.	M.	S.D.	M.	S.D.
인구학적변인	형성기	43.72	3.79	22.25	2.42	29.78	3.11
	평창기	42.63	4.91	22.42	2.86	28.68	2.94
	추소기	44.80	3.96	23.22	2.76	28.72	2.67
	F	5.49**		2.06(n.s.)		2.31(n.s.)	
가정생활주기	상	43.20	4.97	22.38	3.00	28.88	3.05
	중	42.80	4.63	22.35	2.64	28.73	2.81
	하	42.64	4.79	23.39	2.75	28.58	2.99
	F	0.52(n.s.)		3.71*		0.30(n.s.)	
주부의 교육수준	국민학교 졸업	42.12	4.42	22.76	2.88	27.88	2.91
	중학교 졸업	42.87	4.44	23.35	2.68	28.64	3.53
	고등학교 졸업	42.59	5.02	22.41	2.90	28.58	2.84
	대학교졸업이상	43.41	4.75	22.21	2.76	29.09	2.74
	F	1.21(n.s.)		3.19*		1.87(n.s.)	

* .05수준에서 유의적임 ** .01수준에서 유의적임 n.s. = Not Significant

<가설 3>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커어른인식요인 각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단계로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커어른인식을 차이검증한 결과 경제성만이 .05수준에서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나 긍정되었으나 기능성과 심미성은 부정되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단계로 다른 변인을 통제 한 후에 교육수준과 경제성과의 상관 관계는 없었고 기능성과 심미성과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F-test 결과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물리적변인인, 주거형태, 창의 향, 창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커어른인식요인 각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가설 4> 주거형태에 따라 소비자의 커어른인식요인 각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단계로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검증결과 모두 유의 수준에서 의미없게 나타나 가설 4는 부정되었다. 2단계로 다른 변인을 통제 한 후에도 주거형태와 커어른인식요인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표 7)

<가설 5> 거실의 창의 향에 따라 소비자의 커어른인식요인 각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단계로 창의 향에 따른 차이검증결과 경제성은 .01수준에서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나 긍정되었으나 기능성과 심미성은 부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5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이것은 거실의 창의 방향에 둔 가정에서 경제적인 면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단계로 다른 변인을 통제 한 후에 창의 향과 커어른인식요인중 경제성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설 6> 거실의 창의 구조에 따라 소비자의 커어른인식요인 각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단계로 거실 창의 구조에 따른 차이검증한 결과 경제성만 .05수준에서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나 가설 6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경제성에서 단창이 이중창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중창이 단창보다 설치하는 경비가 많이 들므로 생활수준의 차이라고 간주할 때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다는 가설 2와 일치한다. 2

<표 9>

물리적변인과 커튼인식요인간의 변량분석

N=489

물리적 변인		커튼인식요인		기 능 성		경 제 성		심 미 성	
		M.	S.D.	M.	S.D.	M.	S.D.	M.	S.D.
주 거 형 태	한	우	42.43	5.23	23.06	2.95	28.71	3.28	
	양	우	43.06	4.68	22.43	2.90	28.69	2.61	
	집	합 주 택	43.05	4.72	22.33	2.67	28.88	3.11	
	F		0.57(n.s.)		2.05(n.s.)		0.25(n.s.)		
창 의 향	동	향	43.61	4.56	22.15	3.06	28.55	2.92	
	서	향	41.77	4.81	22.91	3.24	29.03	3.55	
	남	향	42.93	4.86	22.38	2.68	28.80	2.84	
	북	향	42.39	4.34	23.97	2.68	28.58	3.02	
F		1.43(n.s.)		4.26**		0.31(n.s.)			
창 의 구조	단	창	43.11	4.85	22.97	2.93	28.61	3.13	
	이	중 창	42.90	4.78	22.36	2.78	28.81	2.87	
	F		0.17(n.s.)		4.02*		0.42(n.s.)		

* .05수준에서 유의적임

** .01수준에서 유의적임

n.s.=Not Significant

단계로 다른 변인을 통제 한 후에 창 의 구조와 커튼 인식요인중 경제성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커튼지의 절연성을 알아보기 위한 보온성의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커튼지의 용도별로는 드레퍼리용이 글래스 커튼용보다 보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 커튼지의 섬유별에 따라서는 보온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섬유의 종류가 같을 때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온성이 높았으며 밀도, 조직, 실의 꼬임, 굵기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보온성이 높게 나타난 직물은 골멘, 마, 레이온, 나일론, 아세테이트, 두꺼운 폴리에스테르, 두꺼운 폴리아크릴이었고, 보온성이 중간정도로 나타난 직물은 우단, 벨벳, 얇은 폴리에스테르이었다. 보온성이 낮게 나타난 직물은 얇은 면, 견, 얇은

폴리아크릴이었다.

3) 드레퍼리직물에 안감을 대고 실험한 결과는 한계으로 실험한 결과에 비하여 보온성이 질감의 종류에 따라 2~5배 이상 증가되었다.

2. 소비자들의 커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실에서의 커튼 설치 현황을 보면 프렌치 주름이 85.7%, 길이는 천정에서 창문턱과 바닥사이가 47.4%, 형태는 타이백커튼이 91.2%, 장식 없는 상태가 49.1%로 대부분의 가정이 특수성이 없는 획일성을 보였다.

이중커튼은 반수이상 설치하였으나 안감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안감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감설치를 보급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튼지는 글래스 커튼이나 드레퍼리 모두 합성섬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2) 커튼의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심미성이 기능성과 경제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커

튼을 기능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장식적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케어튼인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인구학적변인과 물리적변인에 국한하여 F-test와 부분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생활주기로 나타나 가정생활의 경험이 많은 축소기주부가 케어튼의 기능을 잘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F-test 결과 생활수준, 주부의 교육수준, 창의향, 창의구조로 나타났다.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느 요인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천을 위하여 교육계몽이 요구된다.

1. 케어튼의 단열기능을 높일 수 있는 트레이퍼 리용 직물은 폴벤, 레이온, 나일론, 아세테이트, 두꺼운 폴리에스테르, 두꺼운 폴리악릴등이다.

2. 케어튼의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감을 사용하며, 케어튼이 바닥까지 내려오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케어튼 형태의 다양성을 제시하여 획일성에서 벗어나 각 주거에 맞는 케어튼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이 필요하다.

4. 단열기능외에 케어튼의 차음기능, 시야차단, 차광등 여러기능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제형시켜 케어튼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을 보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내장재 섬유중에서 케어튼에 국한하였으므로 가구용 직물이나 카아펫, 벽지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주생활의 합리화에 기여해야겠다.

참 고 문 헌

-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박영사, 1978.
- 김성련, 「피복재료학」, 교문사, 1981.
- 김일진, 조성기, 「주거학」, 동명사, 1977.
- 김정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택용 단열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김홍훈, “의복재료”, 「한국의류학회지」, 제 2권 제 1호, 1978.
- 성락기, “주거건축의 보온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오혜경, “실내의장용 커튼재의 차광, 차음 및 단열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 윤도근, 유희준, 「실내디자인」, 형제사, 1976.
- 이광옥, “커튼문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이신옥, “실내의장의 기본사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8.
- 장미숙, “주택의 개구부와 실내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 장신애, “화학섬유의 보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조일환, 황의원, 「섬유편람 : 원료편」, 대광서림, 1975.
- 주남철,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Collier, A.M., *A Handbook of Textiles*, Pergarnon Press, 1970.
- Comeau, G., “Yarns for Home Furnishings: Knits vs Wovens,” *Modern Textiles*, Vol. LV, No.6, 1974.
- Faulkner, R. and Faulkner, S., *Inside Today's Home*, Rinehart and Winston, 4th ed., 1975.
- Hollen, N. and Saddler, J., *Textiles*, The MacMillan Company, 1973.
- Nixon, M.C., “Fabrics for Home Furnishings: A Novelty Yarn Spinner's Approach,” *Modern Textiles*, Vol. LV, No. 9, 1974.
- Obst, F.M., *Art and Design in Home Living*, The MacMillan Company, 1963.
- Osamoo, Y., 「피복위생학」, 김병우 역, 유신문화사 1980.
- Pahlmann, W., *Interior Design*, Studio

- Crowell, 1955.
23. Schutz, H.G. and Phillips, B.A., "Consumer Perceptions of Texti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5, No.1, 1976.
24. Stepat-de Van, D., *Introduction to Home Furnishings*, The MacMillan Company, 1964.
25. Whiton, S., *Interior Design and Decoration*, Lippincott, 4th ed., 1974.